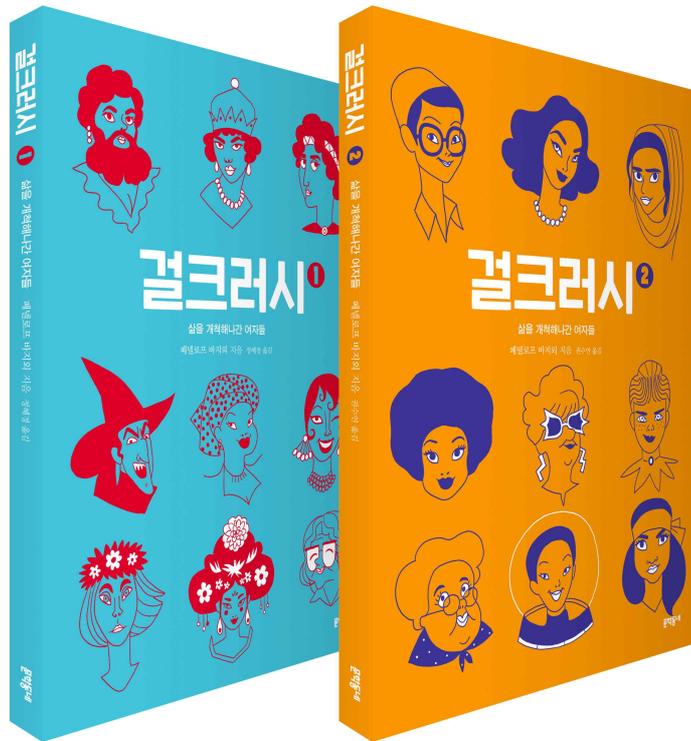


문학동네 신간안내

걸크러시

삶을 개척해나간 여자들

CULOTTÉES – Des femmes qui ne font que ce qu'elles veulent



페넬로프 바지외 지음 | 정혜경, 권수연 옮김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위근우 추천

프랑스 <르몽드>지 블로그 인기 웹툰 정식 출간!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쫓는 페미니스트들의 투쟁. 파리 마치

모든 편견들을 산산이 날려보낼 책. 엘르



『걸크러시』 2권, 46~47쪽, <테레즈 클레르> 편의 일부

기원전 4세기의 산부인과 의사 아그노디스, 아파치 부족의 전사 로젠, 오늘날의 여성용 수영복을 고안한 수영선수 애넷 켈러먼, 노년 여성의 생활 공동체를 만든 사회운동가 테레즈 클레르, 무민 시리즈의 토베 얀손, 그 밖에도 베티 데이비스, 크리스틴 조겐슨, 카티아 크라프트, 리마 보위, 헤디 라마, 템플 그랜딘, 클레망틴 들레, 소니타 알리자데 등 사회의 요구나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지 않으며 규범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간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30인의 삶을 프랑스 작가 페넬로프 바지외가 만화로 재구성했다.

짧게는 3~4쪽, 길게는 7~8쪽의 화면 안에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도 문화도 다양한 여성들의 일대기가 유머러스하고 섬세하게 소개된다. 30편의 만화 안에 묘사되는 30명의 여성들은 모두 역경을 딛고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 위대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걸크러시』는 위인들의 업적을 나열하고 그들의 성취만을 칭송하는 보통의 위인전과는 결이 다르다. 작가는 각각의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성차별주의, 가부장제 등에 맞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간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어쩌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진취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한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의 블로그에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한 차례 연재되어온(여름휴가 기간 두 달 휴재) 동명의 웹툰을 두 권의 책으로 엮어 『걸크러시』가 탄생했다. 짧고 경쾌한 감각으로 현재 프랑스 젊은 독자층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페넬로프 바지외의 글과 그림으로, 연재 당시 프랑스 만화계를 넘어서 대중의 핫이슈로 자리잡으며 조회수 50만 이상을 기록했다. 2013년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기도 한 작가는 연재물을 책으로 펴내며 각각의 이야기 끝에 화면 양쪽 가득 인물의 삶을 압축하는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을 더해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

2016년 1월, 프랑스 만화계는 남성 중심적인가?

만화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번진 논쟁의 중심에서 첫 싹을 틔운 『걸크러시』

당초 『걸크러시』의 <르몽드>지 블로그 연재는 2016년 1월 말 제43회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만화계의 대축제를 앞둔 1월 5일, 페스티벌 대상 후보자 명단 발표와 동시에 만화계가 큰 논쟁에 휩싸인다. 30인의 후보자 가운데 여성 작가가 전무했던 것이다. 게다가 1974년부터 42년 넘게 이어져온 페스티벌에서 여성 작가가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그동안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성차별을 직시해온 여성 작가들을 비롯해 많은 남성 작가들도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SNS 보이콧과 후보 자리를 내놓거나 투표를 거부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그래픽노블 『어린 왕자』 『랍비의 고양이』 등으로 이름을 알린 조안 스파르, 『미래의 아랍인』으로 2015년 황금 야수상을 수상한 리아드 사투프 등이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논란이 된 후보 발표 이틀 뒤, 여성 작가가 포함된 새로운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가, 후보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즉시 달라진 방침을 내놓았지만, 비난의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 수 없었다.

논란이 한창이던 1월 11일, 페넬로프 바지외와 <르몽드>는 대중의 격렬한 반응에 응답하듯 예정된 연재를 3주 앞당겨 『걸크러시』의 첫선을 보였다. 2016년 초 만화계와 프랑스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쟁점 ‘프랑스 만화계는 남성 중심적인가?’라는 물음에서 더 나아가, 성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폭넓은 고찰을 이끌어낸 『걸크러시』는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블로그 연재 당시 조회수 50만 이상을 기록했고, 출간 이후 첫 5개월 동안 7만 5천 부 이상 판매되었다.

세상의 편견을 깨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나간

시대도 문화도 다양한 여성 30인의 호쾌하고 감동적인 삶의 초상

그들은 오랫동안 전장에 나가 군대를 이끌며 40년이나 자신의 왕국을 통치했고, 자신만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영화 역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내전과 독재 정권에 맞섰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모든 제약을 뛰어넘었다. 활동성을 강조한 오늘날의 수영복을 만들어 여성의 몸을 해방했고, 드넓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했다. 가족과 함께할 집을 지키거나,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스스로 원하는 일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냈다.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과 같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거리낄 것이 없었다. 그들은 또한 여전히 우리 곁에서 동물 복지에 힘쓰고, 여자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외치고 공부하고, 자신만의 템포를 잃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달려나간다. 거대한 정부에 맞서 내부고발자들을 변호하고, 여성의 자립과 자율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걸크러시』에 등장하는 여성 30인의 공통점은 모두 주변의 압력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꾸리기 위해 확고하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보다 커다란 역경을 마주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특별해진다.” **페넬로프 바지외**

그들은 모두 삶의 한 순간 역경을 마주한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뛰어넘고, 깨부순다. 때로는 가뿐히 넘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온 생애를 바치기도 한다. 그러나 성차별과 가부장제, 여성에게만 강요된 엄숙주의, 낱아빠진 사회규범이나 인습, 현대의 지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릇된 신념, 종교적 제약, 인종차별, 장애 등 그 어떤 역경도 독심 있게 자신의 길을 고집한 그들을 멈춰 세우거나 삶의 방향을 틀지 못한다.

**재치 넘치고, 아기자기하며 익살스러운 그림,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조로 구현하는 페미니스트 만화!**

3×3, 한 페이지에 9칸 남짓, 인물당 3~8쪽으로 구성된 이야기,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의 끝에 인물의 일대기를 아우르고 감동을 배가하는 화면 양쪽 가득한 일러스트레이션…… 각 장(章)마다 다채로운 색조로 구현되는 페넬로프 바지외의 아기자기하고 익살스러운 그림은 단숨에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개인의 일상을 “소녀 감성(girly)”의 그림으로 전해오던 작가가 다분히 페미니즘적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페넬로프 바지외는 소위 소녀 감성의 그림이 페미니스트 만화와 어울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여성을 단순히 “소녀다운 여자” 아니면 “면도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양분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단호히 대답한다.

페넬로프 바지외는 30인 여성의 삶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당당하고 꾸준히 이어오며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루어낸 성취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이라는 점을 작품 곳곳의 재치 넘치고 감동적인 장면을 통해 강조한다.



『걸크러시』 1권, 116~117쪽, <리마 보위> 편의 일부



『걸크러시』 1권, 98~99쪽, <토베 안손> 편



『걸크러시』 2권, 52~53쪽, <테레즈 클레르> 편

◆ 이 책에 대하여

아름다운 그림과 강한 여성들, 생의 곳곳에 깃든 용기와 꿈틀거리는 힘. 오지은(싱어송라이터, 『익숙한 새벽 세시』 저자)

가능과 불가능 사이의 경계란 그 말의 의미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여성은 의사가 될 수 있는가? 여성은 수염을 길러도 되는가? 여성은 권력을 탐해도 되는가? 여성은 자신에게 부여된 부와 명성을 비웃을 수 있는가? 여성은 대도적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한때 불가능을 전제한 질문이었고, 이 책 『걸크러시』엔 그 경계를 넘어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무언가를 이룩했다는 미담만은 아니다. 가능과 불가능 사이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은 결국 그 경계에 부딪혀 통념의 울타리를 부수는 영토 싸움이라는 것. 세상과 맞짱을 뜬다는 것. 시기상조이지 않으나는 우려를 비웃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 각각의 주인공들은 보여주고 있다. 동시대 여성들이 여전히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에 부딪히며 싸우는 동안, 과격한 페미니즘 운동이 문제라고 왜 굳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전략을 택하느냐고 훈수중인 한국 남성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위근우(대중문화 칼럼니스트, 『프로블랜더 일기』 저자)

그 자체로 눈부신 책이다. 깊은 영감을 주는 이 대담한 여성들의 행보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싶어진다. 마드무아젤닷컴(프랑스 페미니스트 웹진)

오늘날의 여성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꼭 읽고, 선물해야 할 책이다. 파주 데 리브레르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쫓는 페미니스트들의 투쟁. 파리 마치

모든 편견들을 산산이 날려보낼 책. 엘르

◆ 차례

〈1권〉

클레망틴 들레_수염 난 여자
은징가_은동고와 마담바 왕국의 왕
마거릿 해밀턴_무서운 배우
마리포사 자매_독재 정권에 맞선 자매들
요세피나 판호르킴_사랑 앞에 완고했던 여인
로젠_아파치 전사이자 주술가
애넷 켈러먼_인어가 된 소녀
달리아 에이클리_탐험가
조세핀 베이커_무용가, 레지스탕스 활동가, 한 가정의 엄마
토베 안손_화가, 무민 시리즈 창조자
아그노디스_부인과 의사
리마 보위_사회운동가
조르지나 리드_등대지기
크리스틴 조겐슨_셀러브리티
무촉천_황제

〈2권〉

템플 그랜딘_동물의 대변인
소니타 알리자데_래퍼
세릴 브리지스_육상선수
테레즈 클레르_현실에 뿌리를 둔 이상주의자
베티 데이비스_싱어송라이터
넬리 블라이_언론인
폴란 데비_도적 왕
새그스_록 스타
카티아 크라프트_화학학자
제슬린 래덱_변호사
헤디 라마_배우, 발명가
나지크 알 아비드_사회운동가
프랜시스 글래스너 리_범죄현장 미니어처 제작자
메이 제미션_우주비행사
페기 구겐하임_현대미술의 연인

페넬로프 바지외 Pénélope Bagieu

1982년 1월 22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에서 1년 수학 후,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 2007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던 중 자신의 블로그에 일상을 담은 웹툰을 연재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 연재물을 엮어 블로그 이름을 딴 첫 책 『내 인생은 아주아주 찬란해』를 펴냈다. 2008년부터 『조세핀』 시리즈(전 3권)를 그리며 작품활동을 이어왔고, 이 만화를 원작으로 두 편의 실사영화가 제작되었다. 2010년 발표한 첫 장편 그래픽노블 『우아한 시체』는 이듬해 제38회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공식 경쟁 부문에 선정되었다. 광고 및 도서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연출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며 『백지』 『별 중의 별』 『캘리포니아 드리밍』 등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 2013년 제40회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다. 2016년부터 <르몽드> 공식 블로그에 연재한 『걸크러시』는 5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작가 개인 블로그: www.penelope-jolicoeur.com)



웁긴이(1권) 정혜경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어린이책 만드는 일을 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3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웁긴 책으로 『나의 작고 작은』 『잠시만요 대통령님』 『쫘 이상한 사람들』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이 있다.

웁긴이(2권) 권수연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불과를 졸업했다.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인형』 『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평』 『악의 숲』 『언노운』 『그렇지만, 이건 사랑이야기』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지은이 | 페넬로프 바지외

발행일 | 2018년 9월 20일

판형 | 153×224mm (무선)

ISBN | 978-89-546-5294-0(1권) 978-89-546-5295-7(2권) 978-89-546-5293-3(세트) 부가기호 04860

담당 | 김미혜 (031_955_8860/mhkim.littefr@munhak.com)

웁긴이 | 정혜경(1권) 권수연(2권)

쪽수 | 152쪽(1권) 172(2권)

값 | 13500원(1권) 14500원(2권)